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27호 현대불교
2009년 4월 15일(음력 3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당신을 이끌어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으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이곳 광주까지 왕립하셔서 저희 불자들에게 감로법을 설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스님께서 지도해주시는 '믿고 맡겨 놓고 관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따라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증생심이 발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시 물러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증생심이 일어날 때마다 돌려놓고 관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생활의 모든 것이 관 아님이 없고 참선 아님이 없다, 이러한 가르침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벌써 내가 관을 한 것이요 그러니 아, 이 일은 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자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쁜 세상에 생활인으로서 생활의 선법을 어떻게 해 나가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 한 몸뚱이 자체가 꽃 한 송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꽃잎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잎이 한데 붙어 있으면 많죠? 한 몸뚱이에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있고 생명들이 있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규합해서, 즉 말하자면 '주인공 자체다' 이렇게, 자기 뿌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일이 벌어졌든 작은 일이 벌어졌든 종교를 믿지 않든 믿든, 모든 것은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못되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단, 이 세상에 자기를 형성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모든 것은 '내가 형성시키고 내가 이끌어 가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맡겨 놓고 진짜로 믿는다면 우왕좌왕은 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니까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 놓고는 또 못 믿으니까 줘던 거를 도로 뺏는 것과 같아요. '이 서류를, 너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좀 해결해라.' 이라고 믿고 줘던면 해결하게 내버려 두어야 될 텐데 그 서류를 도로 뺏는 격이랄 것입니다. 못 믿으니까! 뺏었다가 줘다가 뺏었다가 줘다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게 됩니까?

그러니 진짜로 믿는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환이 없고 애고 없어질 뿐 아니라 그 모든 의식

이 무너지고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영계성이 무너지고 세균성이 무너지고, 생사윤회에 꼬달라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까닭에 편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보람을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날 주인공이름만 믿고 간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애, 아무개야! 물 한 컵만 다오." 이렇게 "컵에 물 한 컵만 다오." 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은 거지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물 떠 가지고 오는 데는 이름이 하등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 진실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나 따로 있고 주인공 이름 따로 있고, 해 달라는 놈 따로 있고 해 주는 놈 따로 있단 건 아니죠. 과거 살던 자기처럼 현재 자기가 '이놈아, 네가 살면서 다 저지르고, 영혼의 뿌리 네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나를 형성시킨 것 아니냐. 네놈이 형성시켜서 네놈이 끌고 다니는데 네놈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하고 진짜로 맡겼을 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과거에도 자기가 살았고 현재에도 자기가 살고 또 미래의 오늘도 자기가 살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만 바뀌질 뿐이죠.

질문자2(남): 큰스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큰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뵈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원입니다. 큰스님 계승을 선행자로 만든 '빈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올 때도 빈발 갈 때도 빈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고 가는 중에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하러 나왔을까요?

큰스님: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을 해 보죠. 여기 걸어오실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은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을 때 또 한 발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발은 무(無)에서 한 발은 유(有)에서, 이렇게 항상 떼어 놓고 가니까 내가 댄 사이가 없죠. 그러면 또 전력이 말입니다. 이 태양계로부터 전력을 끌어 쓰는데 우리가 그릇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열을 받아서 전력으로 쓸 수 있죠? 장치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우리가 마음으로써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워 놓지 않는다면 태양열을 받아쓰려고 장치를 해 놓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열이 들

어올 때는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들어온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태양열은 들어와서 전력으로 흘러서 전력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빈발 빈손, 무심 속에 무의 세계,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의 세계, 물질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검은 지평선도 역시 지수화풍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폭발해서 우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보지 못하죠. 전력이 들어오



그림 · 최추현

고 나가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니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가설을 해서 불을 켜고 끄는 것만 알았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못 보지요? 못 보는 건 못 보는 건데 진짜로 빈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빈발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주 대전세계를 한 발로 디뎠습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발이 부처님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발입니다. 부처님 손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손이고요. 그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는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하셔야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써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빈손이다, 빈발이다' 하는 것을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빈발 빈손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손, 보이는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알게 되겠죠.

질문자2(남): 알겠습니다.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3(남): 스님, 이렇게 많은 대중의 마음에

불을 밝혀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음선원에 다니기 전에는 다른 절에 다녔었습니다. 다른 절에 다닐 때는 보통 불단에 삼배를 하면서 나 잘되게 해 달라는, 또 오직 우리 가족 잘되게 해 달라는 욕심에 가득찬 그런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다가 한마음선원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주인공 공부를 하다 보니

만 예를 들어서 전화로다가 "아무개가 지금 그냥 토하고 또 피가 땀지를 앉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았어!" 이렇게 해도 벌써 빈손 빈발을 왔다 갔다 한 거죠. 하하하... (대중 박수)

질문자3(남):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 자리는 본래부터 청정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음을 뒤야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것이 뒤야야 한다는 언어도 사실은 우매한 거죠. 뒤야야 한다고 했는데 뒤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모두 살고 또 죽고, 뒤집어졌다 바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 뒤집어지고 바로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생동력 있게 살아나고 있고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는다는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딱쳐오는 대로 재료로 삼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뒤는다고 해도 뒤를 게 있어야 뒤죠. 본래 뒤를 것도 없고 먼지 앉을 것도 없고 옮겨 놓을 것도 없고 옮겨 놓지 않을 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기 마음으로 먼지를 붙여 놓고 때려고 애를 쓰고, 구멍을 뚫어 놓고 메우려고 애를 쓰고, 마음으로 지어 놓고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 마음으로 지은 것이 거죽으로 항상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만든 컴퓨터는 모두 입력을 해서 쓰지만 우리 살아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동적인 컴퓨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입력되니까요. 행하고 말하고 살아나가는 그대로 그냥 입력이 돼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즉 자동적인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각자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뒤는다는 안 뒤는다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여하게 그대로 살아나가는 게 그대로 그놈이 하는 거구나. 보고 듣고 듣고 내고 하는 것이 전부 그 한놈이 하는 거로구나.' 하고 믿고 생각을 잘하세요. 꿈을 잘못 꾸어서 '아이구! 이거 큰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꿈을 잘못 꾸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어, 이거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너니까 꿈을 잘 꾸어서 지금 현실에 잘되게 하는 것도 너다.' 이라고 꼭 돌려놓으라 말입니다. 그게 뒤는 거예요.

26면으로 계속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사찰범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 | | |
|--------------|-----------|
| 1. 각종 전문 재의식 | 4. 사다라니바라 |
| 2. 사물 다루는법 | 5. 오공양작법 |
| 3. 천수바라 | 6. 요잡 |

- 불교의식무용반 : 선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산청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현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 맞는과일, 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 목소리 체형, 살갓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중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 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형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지도교수

- ◆ 著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 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역학 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1달만 공부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을 전수합니다. 진정한 프로가 되고 싶으면 지금 시작하세요.

- 기간 : 1개월 완성
- 문의 : 효타암 051)524-9406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 정가 5만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